

찾아가는 현장  
축제 한마당  
앞서가는 사람들

강원도  
전주국제영화제  
손춘익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팀장

## 지방자치 꽃 피우는 그들을 만나다!

●  
현장 섹션은 더 나은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코너. 지방자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들을 만난다. 이번 호는 '2012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대회에서 세출예산 절감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강원도와 더불어 세외수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손춘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을 만났다. '축제 한마당'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소개한다.



## 강원도

# 성장 기대와 자신감으로 큰 발걸음 내딛다!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글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자료 • 강원도청



- 울창한 삼림의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면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파쯤 되지 않을까. 다양한 색들 중에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녹색'. 이에 대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강원도 하면 '산 좋고 물 맑은'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었다. 예전에는 이 말이 그리 기분 좋은 수식어가 아닌,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강원도의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 산 좋고 물 맑은 자연환경을 내세워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 작년 말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대회에서 세출예산 절감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강원도청

● 2013년 재정자립도 21.7%, 지방채 규모 5,420억 원, 주요 채무지표 9개 도 중에서 평균 6위. 지방재정 면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강원도. 그러나 최근 강원도가 달라지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강원도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했다. 성장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으로 큰 도약을 꿈꾸고 있는 강원도. 강원도는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한 가지 난제가 있다. 그 많은 재정지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 취약한

세입징수기반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18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도약의 기회와 '지방세입 결손'이라는 최악의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실현해야만 하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있게 된 것이다.

## 예산 편성체제 개편으로 예산 절감하다

● 강원도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예산 편성체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긴축 재정운용 대책을 마



련한 것이다. 예산부서가 일방적으로 세출을 절감하게 되면 각 실국은 사업추진에 수동적이게 되고, 새로운 도정 활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세출 절감과 실국의 자율·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예산 편성체계 개편은 도지사 또는 예산부서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편성 권한을 소관업무실·국장 실무자에게 수평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자체사업을 분석하여 ‘실국 자율편성사업’과 ‘예산부서 직접편성사업’으로 나누고, 실국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에게 자율편성 한도액을 부여함으로써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예

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4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절감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가져다 준 성과였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일몰성과도 전년 대비 다섯 배나 증가했다. 예전엔 예산부서에서 일몰대상사업 등을 선정하고 현장을 점검한 후, 사업부서와 폐지여부를 놓고 힘든 줄다리기를 했다. 그러나 실국에 자율권을 준 이후에는 실국에서 스스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단체·기관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말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대회에서 세출예산 절감분야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



2

1 강원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카페  
2 강원도가 자랑하는 것들을 전시한 홍보전시관 입구

## 작년 4% 경제성장률 이룬다

● 강원도의 변화는 예산 편성체제 개편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제조업 생산증가, SOC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4%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전국 평균 2.3%의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강원도의 3대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준공 등으로 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강원도가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4가지 틀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녹색첨단소재산업을 집중육성,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조성한다. 둘째, 동해안권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동해안

권을 '환동해권 교역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셋째,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플로라시티를 조성하고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역-DMZ-설악-금강을 잇는 복합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넷째, 국제기준에 적합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사업자 미확보와 외국인 투자유치 미흡 등에 따른 분양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강원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밀분석, 기존 구역 개발사업의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경쟁력있는 첨단녹색소재산업과 관련 국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성공가능성에 대한 자신



1

감이 있다. 이미 많은 국내·외 투자를 확보했고, 또 지구별 개발사업자가 확보돼 있어 조기개발이 가능한 만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른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4년까지 1조 3,075억 원을 투자해 특성화된 지역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동해 시대를 대비한 대륙으로 가는 물류·교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춘천-속초 간 도시고속화 철도와 원주-강릉 간 복선 철도 등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추진중이다. 북극항로 개통에 대비해 해양물류항 거점지역도 육성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되면 TKR/TSR로 연결될 전망이다.

##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시작하다

● 올 초부터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비롯한 기존 공무원 복지시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즐겁고 활기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의 창의적인 사고 극대화와 소통·결속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소통과 이해, 직업의식 변화까지 고려하는 조직문화 운동으로 추진중이다. 내부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구성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뢰’ ‘자부심’ ‘즐거움’ 3개 분야에서 14개 사업이 추진중이다. 생생 삶의 현장 탐방, 크로스 미팅, ‘니누면 행복 두배’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 ‘행복2음’ 식당 운



영, 구내식당 ‘프리존’ 운영, 자기개발 특별휴가 제, ‘휴’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도정 5대 분야 중점 추진하다

● 올해 강원도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대륙전진기지 기반구축과 경제성장률 5.2%, GRDP 34조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레고랜드 착공, 바이오-플라즈마-의료기기 등 첨단산업의 도약과 기업지원,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확대와 서비스 분야의 관광 활성화, 소득증대, 물가 안정 등의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대북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로 경기장 건설, 도로·철도 등 국책사업 확대로 경제상승 기회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제조업 매출과 수출 증가, 국비 확보, 농어촌 소득 증가, 인구유입, 관광객 및 관

광수입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특히 소비가 잘 이뤄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복지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복지투자를 13% 이상 늘려 도정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더 자신있게 추진해 꼭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



- 1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홍보전시관 내부
- 2 봉오~파포(속고개)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공식 장면
- 3 강원도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직원들  
(사진 가운데가 김한수 예산담당관)



인 터 뷰

최문순 강원도지사

## “가이드이자 응원자 역할에 충실”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글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자료 · 강원도청





###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이 인상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푸근함이 오히려 도정을 수행하는 데에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권위를 내세우는 직책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가이드이자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문화가 중요하죠. 이는 MBC 사장시절부터 쌓아온 신념이고 노하우예요. 조직의 상상력이 살아야 창의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웃음감자’, ‘친절감자’, ‘섬김감자’로 일해 나갈 겁니다.

### 취임 2년 후 달라진 강원도 모습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변화의 핵심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조직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과도기가 끝나면 모두들 주도적으로 일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MBC 사장시절에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더군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의 이익으로 직결되죠. 공무원 조직은 직위와 직급이 있어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요.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길게,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극복할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어



▲ 강릉 옥계산업단지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준공식에서의 최문순 강원도지사

서 재정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축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죠. 작년 한해 예산편성체계 개편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 조치했고, 부족한 재원은 국비와 교부세 등 중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 결과 국비를 4조 5,690억 원을 확보해 원래 목표인 4조 4,000억 원보다 1,690억 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민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꼭 실현하겠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전기입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힘겹게 유치에 성공했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에만 1조 545억 원이 들어가고,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과 문화올림픽 개최, 주변지역 환경정비에도 큰 돈이 들어가죠. 앞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국비를 지원 받곤 있지만, 기본 시설공사비에만 앞으로 3년 간 도비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초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합니다. ‘실국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도 이러한 초긴축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어요. 도 공무원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율적인 예산절감(전년대비 120억 원)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원도 평창에서 더반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산체제 개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 그건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했던 조직개편을 완성하기 위한 후속조치였어요. 현재 강원도 조직도의 맨 위는 실무자입니다. 도지사가 맨 위에 있는 과거의 조직도와 상반된 구조죠. 작년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실무자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편성 권한의 일부를 실국에 위임한 겁니다. 실국이 편성한 자율편성사업을 100% 수용한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권한위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한 사례가 없었기에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적의 실국한도액 설정,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평적 소통을 통해 최적의 실국한도액을 설정했어요. 그 결과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산편성체제 개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성공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예산절감보다는 제한된 재원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 특히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올해 강원도정의 목표는 경제성장률 5.2% 달성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생산을 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해야 합니다. 국비·관광수입·소득·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선 지난 2월 5일 이루어진 ‘경





2

- 1 최문순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
- 2 푸근한 웃음이 인상적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 3 철원평화산업단지 용역 최종보고회 자리

제자유구역 본지정'이 중요해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또 하나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강원도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앙'에 대한 '주변'이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굳이 위치를 표현하자면 '지역'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아니라 '강원지역경찰청'으로 쓰는 거죠. '지방분권'이라는 말도 그래요. '중앙이 나눠준다'는 뜻이잖아요. 대신 '지역주권'이라고 쓰는 겁니다. 저는 '지역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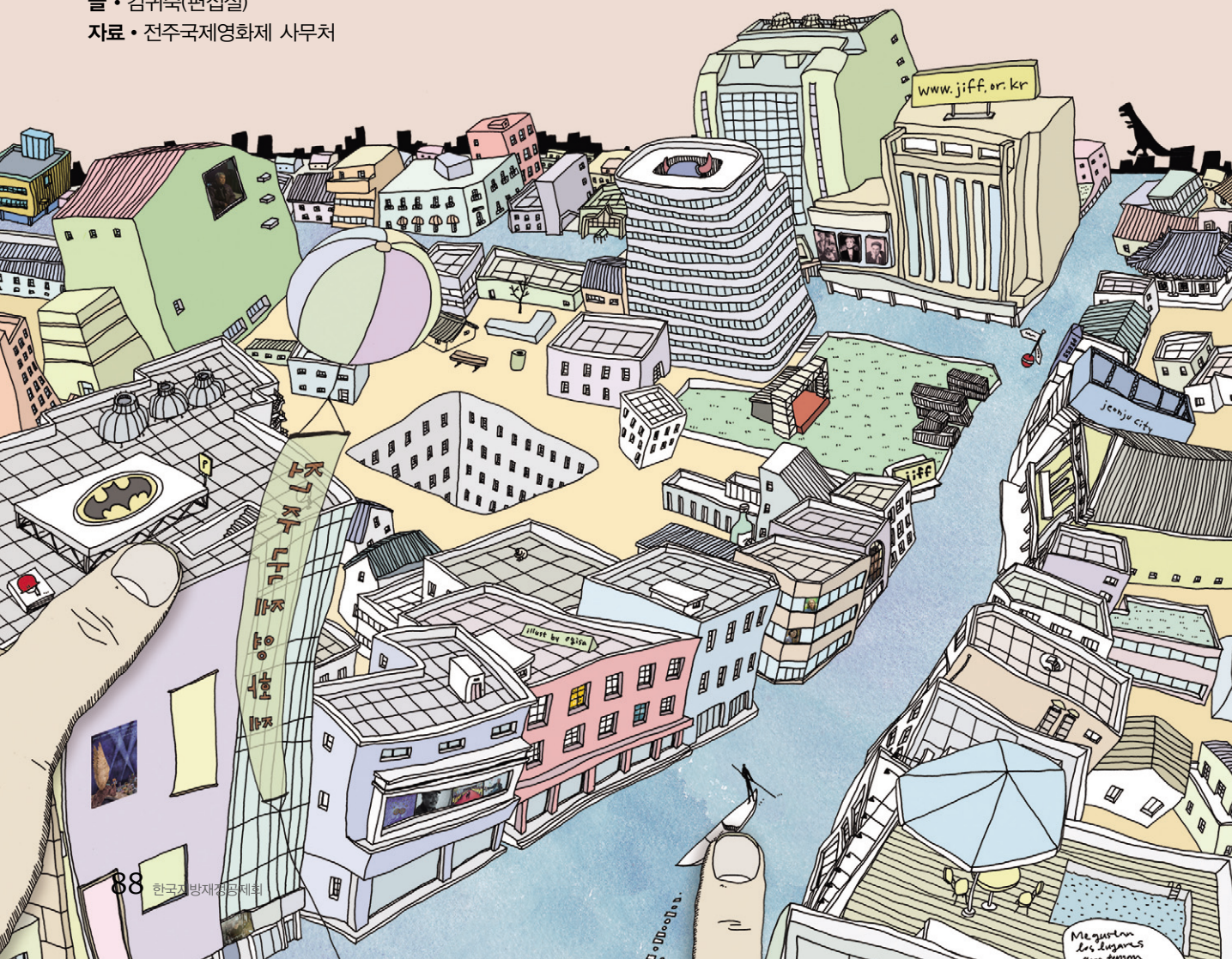


# 삶과 문화가 만나는 축제의 장 펼쳐지다!

##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글 · 김귀숙(편집실)

자료 ·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





-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풍성한 이벤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가 가진 전통의 이미지 위에 젊음의 축제를 더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전주가 자랑하는 풍성한 먹거리까지 더해져 먹는 것과 볼 것이 만나는, 삶과 문화가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 대안과 독립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세워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영화의 발굴과 문화의 창구라는 역할을 지난 13년간 소화해 왔다. 많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지지는 낯선 영화를 소개하는 데에 굳건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지지의 힘을 바탕으로 전주국제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넘어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국내의 젊은 감독들과 손잡고 단편영화 제작 프로젝트인 '슛!슛!슛!'을 이어감으로써 디지털로 만들어진 독립영화의 중요한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소개되면서 전주의 얼굴이 되어주었고, 하나의 영화제가 소비의 창구가 아니라 생산의 산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 ‘디지털 삼인삼색’ 이방인, 낯선 감정을 이야기하다

●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이자 매년 전 세계 영화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디지털 삼인삼색 2013’ 프로젝트. 전 세계 거장감독들 중 전주국제영화제가 선정한 세 명의 감독에게 전주국제영화제에서의 월드프리미어 상영을 전제로, 작품 당 5,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해 각각 30분 분량의 디지털 영화를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후에는, 전 세계 영화제 상영과 국내외 배급을 진행해 좀더 많은 관객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이방인’이란 공통된 주제로, 일본 영화계의 살아 숨쉬는 거장 고바야시 마사히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시네아스트 장률,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차세대 작가 에드윈 감독이 주인공이다.

2012년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시네마스케이프’ 부문에 ‘위기의 여자들’을 상영하며 깊은 인연을 맺은 고바야시 마사히로 감독의 ‘만날 때는 언제나 타인’은 감

(2003)로 국내에 이름을 알리고, 2009년 한국장편경쟁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장률 감독은 자신의 첫 다큐멘터리인 ‘풍경’을 통해 서울 거리, 그 안의 이방인의 풍경을 묘사한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계의 삶을 상징하는 장률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또한 ‘경계에 선 인간’을 관조적이지만 애뜻한 시선으로 조명한다.

2008년, 2011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의 단편영화 연출작을 소개하며 전주국제영화제와 인



독의 2007년 작품인 ‘사랑의 예감’의 후속작. 언어적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를 다름으로써 부부 관계 속의 이방인을 그려내고, 이를 통해 부부 내면의 갈등을 생생히 묘사한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장편 데뷔작 ‘당시’

연을 맺은 에드윈 감독은 ‘누군가의 남편의 배에 탄 누군가의 부인’에서 미스터리와 호기심으로 이뤄진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와의 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떠나는 여인의 공허함과 욕망을 동시에 담아낸다.





## ‘쏙!쏙!쏙! 2013’ 소설, 영화와 만나다!

● 매년 재능있는 젊은 감독들을 선정하여 중·단편영화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왔던 전주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 ‘쏙!쏙!쏙!’ 프로젝트. 올해는 국내 단편소설을 각색하여 단편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젊은 감독 지원과 동시에 국내 우수한 단편소설을 해외에까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소설과 영화’, 이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은 한국 문단의 기둥이자 평단과 대중 모두를 사로잡은 김영하 작가다.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게스트 위소스키 남매 감독이 김영하 작가의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흥미롭게 읽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김영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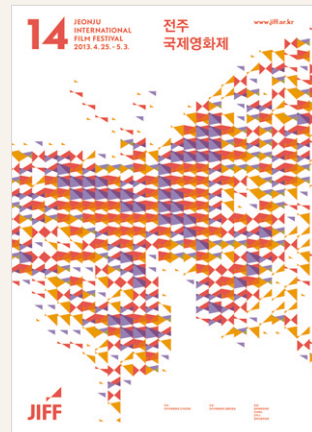
그는 트렌디한 소재를 통해 동시대의 이야기를 명쾌하고도 아이러니하게, 또한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며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대 최고의 작가로, 문단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작품을 스크린에 녹여낼 이들은 바로 이상우, 이진우, 박진성·박진석 감독이다.

이상우 감독은 김영하 작가의 ‘비상구’를, 이

진우 감독은 ‘피뢰침’을, 박진성·박진석 감독은 ‘마지막 손님’을 각색해 연출할 예정이다. 🍿



###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 개최명 : 2013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날짜 : 2013년 4월 25일 ~ 2013년 5월 3일

● 장소 :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

● 홈페이지 : [www.jiff.or.kr](http://www.jiff.or.kr)



# 해운대해수욕장의 역사를 만든다!

## 손 춘 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정리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 과거 신혼여행과 학생들의 수학여행으로 유명했던 해운대해수욕장. 이곳은 전 국민의 낭만과 추억, 다양한 이야기가 녹아있는 역사적인 문화공간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해운대해수욕장은 바가지요금과 무질서가 없는, 명품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하다. 해운대해수욕장이 명품해수욕장으로 태어나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을 땀과 부끄러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손춘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 바가지요금과 무질서 없애기부터 시작해 해수욕장 책임보험 가입, 해수욕장운영 조례 전면 개정, 두 번에 걸친 탈의장 시설 개선, 공영파라솔 운영제 정착, 백사장 청결유지비 부과, 스마트비치 시스템 도입 등 그야말로 명품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그를 만났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빼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를 가진 해운대해수욕장과 부드러운 모래, 얇은 수심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해운대·달맞이·송정 3개의 관광안내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두 곳 모두 휴가철 연중 최대 인파를 자랑하는 곳이죠. 해운대해수욕장만 해도 작년 한해 1,373만 7,000명이

다녀갔어요. 근무지가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돼 있어서 사시사철 현장에서 모든 시설물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스마트비치 시스템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피서객들이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 또는 QR이용권(손목밴드)으로 백사장에서 파라솔이나 튜브 등 피서용품을 빌리고, 탈의장에서 옷을 보관하거나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지난 2년 간 이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례를 발표했는데, 좋게 평가받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됐어요.

스마트비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해수욕장은 현금을 갖고 다니기 불편하

좋아요. 소지품 도난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불편을 줄이고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파라솔 운영단체들이 지나치게 과열경쟁하면서 생기는 호객행위나 운영요원들의 현금탈루, 100% 현금거래로 인해 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문제였죠.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쓰는 손목밴드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죠.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객관적인 수익자료 확보로 성실 납세를 끌어내고, 해수욕장에 재투자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어 미아 찾기, 날씨정보, 숙박·음식점 정보 등 피서객들에게 유용한 부가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어요.



## 2년 동안 운영성과는 어땠습니까.

●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첫해인 2011년에는 파라솔 운영단체원들의 노골적인 반발로 어려움이 컸어요. 다행히 시행 2년차인 작년에는 반발이 상당히 줄었죠. 파라솔 대여단체들의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현금거래만 하던 2010년 1억 8,800만 원에서 2011년 4억 4,300만 원(스마트비치 2억 7,300만 원)으로, 시행 2년차인 2012년에는 6억 2,600만 원(스마트비치 5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스마트비치 시행 2년 만에 현금거래만 하던 2010년보다 매출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피서용품 운영단체들의 수입이 투명해지면서 청소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도 있었죠. 도입 이후 세외수입을 연간 5,600만 원씩 총 1억 1,200만 원 증액 징수했고, 자율신고에 의존했던 부가 가치세도 도입 전인 2010년 1,200만 원에서 2011년 2,100만 원, 2012년 4,100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학생 일자리도 늘었어요. 스마트비치시스템 키오스크 이용법을 안내하는 30명과 QR코드 발권 60명, 백사장에서 결제 20명, 잔액환불 20명 등 13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민간 자본 14억 원을 유치했어요. 국토해양부 권장사업인 비치아답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협약을 추진했죠. 비치아답터 프로그램은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업이 해수욕





● 해운대해수욕장에 자리잡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장 시설투자와 관리를 맡고, 지자체에서는 간접 광고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2011년 1월 스마트비치 구축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2011년 시범운영했는데, 이용객 만족도와 이용률이 56%더군요. “결제대기 시간이 길었다”는 피서객들의 불편이 많아서 작년엔 태블릿PC에서 포스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이용률을 65.1%로 높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파라솔 운영단체원들의 비협조였어요. 현금만 받아오면서 세금과 청소비를 적게 내다가 스마트비치를 도입하면 “우리 단체들은 다 죽는다”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여론을 악화시켰죠. 단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당부했어요. 잘하는 단체



는 표창과 단체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고, 비협조 단체는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 열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간은 주무관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7년 간은 해수욕장 운영팀장으로 11년 동안 일하고 있어요. 공직생활의 절반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2000년 주무관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불량배들이 불법 파라솔을 설치하고 바가지요금을 받는가 하면, 탈의장은 코카콜라가 200평 규모로 8동을 건립하고 공개입찰하면서 업체들이 낙찰가를 만회하기 위해 조리음식물 취급과 코너분양을 하는 등 위법과 탈법이 이루어졌죠. 또 호안도로는 181개에 이르는 불법포장마차들로 가득 차 피서객들이 걸어다닐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어요. 그래서 2001년 해수욕장 관리 조례부터 개정해 탈의장 규모와 동 수를 4개로 줄이고 구예산으로 설치해 공익봉사단체들이 노천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었죠.

지역상권 활성화와 불법 전대 등 위법·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파라솔은 구에서 협찬을 받아 공영파라솔 제도를 도입했어요. 20개 봉사단체에게 백사장 점용허가를 해주고 5,000원의 임대료를 받게 했죠. 바가지요금과 무질서를 동시에 없애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 땅 주장' 등으로 특정단체에 점용허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행보증금제를 신설하고 행정지도 위반단체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점용허가’ 대신 ‘파라솔 운영권’만 허가했습니다. 드디어 2006년,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피서용품 대여 관련 바가지요금이 사라지면서 2007년 백사장에서 얻은 수익을 해수욕장 관리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점용료 대신에 파라솔 운영단체별 ‘청소비용 분담제’를 시행했어요. 점용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점용료의 4배를 청소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었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이곳은 불량배나 잡상인들과 몸싸움을

해야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죠. 젊은 직원들은 2~3년이 멀다하고 떠나곤 합니다. 여름철 휴가는 물론이고, 토·일요일에도 쉬지 못해요. 남들은 잘 보고 ‘해수욕장이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래 일하면서 참을성이 길러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유연해진다고 할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설치하는 불량배 50여 명을 3~4년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했죠. 이들에게 지역봉사단체를 만들게 하고, 공익봉사단체들과 똑같이 공영파라솔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을 제도권 내에 수용한 거죠. 수익금 일부는 봉사활동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에 기여도 하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 피서객들은 현금 없이도 물놀이를 즐기니까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선호하지만, 운영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투명해져서 청결유지비와 납세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죠. 현금으로 결제하면 6,500원, 스마트비치를 이용하면 5,500원 등 가격 차별화를 시행해야 시스템이 안

그밖에 하고 싶은 말씀은.

●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주변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동안 현금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됐는데, 뭐하려고 이런 번거로운 걸 하느냐”고 반대했던 이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터치결제인 NFC(근거리 무선 결제시스템) 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드회사들과 연계한 할인정책, KTX 내 스마트비치 이용안내



정적으로 정착될 걸로 보입니다.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마찰도 조금 있어요. 운영업체는 기업이다 보니 이윤추구가 목적이잖아요. 유지관리 등에서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의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